

《증보문헌비고》(여지고)의 구성체계와 특징

한 명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전하여주는 귀중한 실물자료입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10권 265페이지)

《증보문헌비고》(250권 50책)는 우리 나라 고대,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군사, 교육, 법률 등에 관한 자료들을 부문별로 구분하고 다시 그것을 항목별로, 년대순으로 분류정리한 류서이다.

이 글에서는 《증보문헌비고》에서 한개 구성부문을 차지하는 《여지고》의 구성체계와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이 책에 대한 지리지로서의 면모를 밝히려고 한다.

18세기에 들어와 조선봉건왕조의 통치제도와 군사제도는 극도로 문란하여졌으며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국력이 몹시 약화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조성된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습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이로부터 봉건통치배들은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와 봉건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그에 필요한 전례를 역사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769년(영조 45) 당시의 지리학자 신경준에게 《여지편람》을 총 편집하게 하였고 그해 12월에는 편집청을 설치하고 18명의 학자들을 선발하여 《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문헌편집을 시작하였다.*¹ 1770년(영조 46) 8월 100권 40책으로 된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이 편집출판되었는데 신경준은 이 책의 한부분인 《여지고》를 맡아 집필하였다.*²

*¹ 《영조실록》 권113, 45년 기축년 12월 임신일

*² 《영조실록》 권115, 46년 경인년 8월 무인일

1770년 8월에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가 나왔고 그후 리만운부자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차례의 수정, 보충을 거치고 거기에 《궁실》이라는 항목을 더 넣어 1907년에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가 편찬되였다.

《여지고》는 국가적인 관심속에서 편찬된 류서로서 특히 전국적지리지로서의 형식과 면모를 비교적 원만하게 갖춘 문헌으로 출현하였다. 즉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우리 나라의 지리학과 관련한 국내외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하면서도 경제지리나 승람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 역사지리적사실, 저서들을 구성에 포함시켜 만든것으로서 비교적 종합적인 지리지로서의 성격을 갖추고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국내의 지리에 대하여 역사지리와 정치지리(행정지리), 도로관계, 군사지리, 자연지리 등 여러 부문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당시 이름난 실학자들과 편찬자들의 주장까지 포함시켜 만들었고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후 리만운부자가 수정, 보충한 내용과 새로 설정하여 넣은 건축관계 자료들, 1903~1907년까지 수정, 보충된 내용을 더 포함시켜 만든것으로 하여 전국적지리지로서의 편찬체계를 갖추고있으면서도 종전의 지리지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측면을 가지고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의 구성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모두 27권으로 되어있다. 권1-권2는 《력대국제》, 권3-권6은 《군현연혁》, 권7-권11은 《산천》, 권12는 《도리》, 권13-권23은 《관방》, 권24는 《부록》, 권25-권27은 《궁실》로 되어있다.

《력대국제》에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를 국내외의 많은 력사문헌들을 참고하여 고조선, 진국,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의 순차로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고조선과 그에 린접한 예, 맥국, 동옥저국 등 력대 국가들과 종족들의 지리적위치,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의 《4군》, 《2부》, 《2군》, 락랑분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고조선의 옛 령역에서 일어나 강대국으로 장성발전한 고구려의 력사지리, 도성들의 지리적위치와 천도과정 그리고 고구려가 통합한 속국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뿐만아니라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것을 계승하여 일어난 발해의 령역, 진국, 백제, 신라 등의 수도변천과 그 지역의 변천과정, 고려의 수도 개정과 부도(부수도)들을 밝히고 고려의 서북 및 동북국경, 조선봉건왕조의 강역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군현연혁》에서는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시기 군, 현들의 설치와 분리, 폐지 등 연혁과 부록으로 고려의 강역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한 다음 조선봉건왕조시기 군, 현들의 연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전국을 8도로 나눈 사실과 그 력사적변천과정에 대하여 개괄한 다음 도를 단위로, 각 도에서는 군, 현들을 단위로 하여 먼저 해당 도 변천과정을 해설하였다. 그리고 각 군, 현들의 변천과정과 소속관계를 고조선, 세나라(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로 구분하고 도표안에 넣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해당 도의 서술에서 고증이 부족한 자료들은 국내의 많은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바로잡아 놓았다.

《산천》에서는 《산총설》과 《천총설》, 《산천각설》 등 3개의 항목을 설정하고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산총설》에서는 백두대산줄기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백두산과 삼각산, 원산(두류산, 백암소속), 랑림산, 두류산(양덕소속), 분수령,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장안산, 지리산 등 12개의 산들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요한 모든 산들과 령들을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천총설》에서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한강, 레성강, 대진(안성천), 금강, 사호강(영산강), 섬강(섬진강), 락동강, 룡흥강(금야강) 등 12개의 큰 강들을 설정하고 그 주류와 지류의 모든 물줄기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산천각설》에서는 8도의 각 군, 현들을 단위로 하여 그 지역안의 크고 작은 산과 령, 강하천들을 모두 서술하였다.

《도리》에는 일반교통과 군사행동 및 행정, 경제의 측면에서 당시 국내의 주요도로들이 9개의 큰길과 그에 따르는 작은 길로 구분되어 리수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관방》(국경방비)은 《성곽》과 《해방》(연해의 방비), 《해로》(바다길) 등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성곽》에서는 먼저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우리 나라에 있었던 도성들을 개괄하고 성곽들에 대하여 각 도, 군, 현들을 단위로 서술하였다. 《해방》에서는 전국의 해상방위의 지점을 동해, 남해, 서해의 해안선을 따라가며 서술하였고 《해로》에서는 국내 서남해로와 중국으로 통하는 해로,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의 침략자들이 침입한 로정, 서해를 통하여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와 물물교환을 진행할 때 리용하던 해로, 서해쪽으로 침입하는 해적들에 대한 방어자료, 일본과의 교빙해로, 서해의 밀물과 썰물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부록》에서는 북간도와 서간도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궁실》에서는 우리 나라의 건축 관계 자료들을 《력대궁실》, 《지방궁실》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력대궁실》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궁실들을, 《지방궁실》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각 도와 군, 현들에 있는 궁실관계 자료들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교》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한데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지리로부터 자연지리와 군사지리관계의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당시의 사회정치관계와 도로관계의 자료, 건축관계의 자료들도 다른 문헌들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교》에는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 나라의 방비를 위하여 중요시하던 성곽제도와 해상방위에 관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교》는 국내지리에 대한 편람을 목적으로 편집한 책이지만 당시 우리 나라 지리문헌편찬의 경험과 성과들을 종합하고 거기에 또 국내외의 많은 지리문헌들을 참고하여 편찬한 책인것으로 하여 그 구성체제에서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 특징은 첫째로, 전반적내용을 부문별로 구분한 구성체제라는것이다.

지난 시기의 지리문헌들은 고을을 단위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실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권1의 첫머리에 당시에 작성된 전국지도인 《8도총도》를 붙이고 매 도들의 앞에도 해당 도의 지도를 붙이였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의 《경도》와 《한성부》에 대하여서는 《국도》(나라의 수도), 《성곽》, 《궁궐》, 《단묘》(사당), 《원유》(동산), 《문직공서》(조선봉건왕조시기 중앙일반행정기관), 《무직공서》(조선봉건왕조시기 중앙군사기관) 등 7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각 도에 대한 서술에서는 먼저 해당 도에 대한 총론형식의 설명을 주고 해당 도의 중심지와 함께 각 고을의 제반 사실들을 고을별로 나누어 일정한 항목밑에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구성체제는 그 이후에 나온 읍지들과 19세기 중엽에 나온 《대동지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러한 구성체제는 당시까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제반 역사자료들이 고을별로 종합되어있어 그 고을들의 각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파악하는데는 유리하지만 각 부문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는 불리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교》에서는 당시의 역사적사실들을 도와 고을을 단위로 구분하여 서술하지 않고 자료편람에 유리하게 역사, 정치, 군사, 도로, 자연, 건축 등 부문별로 구분한 다음 일정한 세부조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들을 전개하였던것이다.

그 특징은 둘째로, 항목설정에서 간결한것이다.

《여지교》는 항목설정에서도 그 이전시기의 지리지들처럼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고 편람의 성격에 맞게 간결하게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련관이 있는 자료들을 하나의 항목을 설정하고 서술하였다. 실례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 이후에 나온 《전라도읍지》의 항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 《국도》, 《성곽》, 《궁궐》, 《단묘》, 《원유》, 《문직공서》, 《무직공서》, 《건치연혁》, 《진관》, 《관명》, 《군명》, 《성씨》, 《형승》, 《풍속》, 《산천》, 《토산》, 《관방》, 《봉수》, 《궁전》, 《루관》, 《루정》, 《정사》, 《학교》, 《역원》, 《원우》, 《교량》, 《부방》, 《시가》, 《공해》, 《창고》, 《불우》, 《사묘》, 《사단》, 《릉침》, 《총묘》, 《고적》, 《명환》, 《인물》,

《우거》, 《류우》, 《효자》, 《충의》, 《렬녀》, 《제영》, 《변오》 등.

《전라도읍지》의 항목: 《건치연혁》, 《군명》, 《방리》, 《산천》, 《형승》, 《성지》, 《관방》, 《진보》, 《창고》, 《교량》, 《도로》, 《토산》, 《전공》, 《전부》, 《호구》, 《루정》, 《단묘》, 《릉침》, 《학교》, 《고적》, 《호수》, 《제언》, 《장시》, 《불우》, 《환적》, 《인물》, 《제영》, 《풍속》 등.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의 항목: 《력대국계》, 《군현연혁》, 《산천》, 《도리》, 《도성》, 《성곽》, 《해방》, 《해로》, 《조신》, 《궁실》.

이와 같이 세개의 지리문헌들은 구성체계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있다.

15세기말에 편찬하고 16세기초에 보충한 인문지리책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세기이후에 나온 지방지인 《전라도읍지》 그리고 《여지고》의 구성체계에서의 차이는 해당 문헌들의 편찬목적과 내용적특성, 그 우점을 보여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자연지리와 경제지리, 력사지리적인 내용을 반영한 《8도지리지》를 기초로 하여 편찬하면서도 문학작품들까지 포함시켜 만든 《승람》인것으로 하여 지리문헌으로서 담아야 할 내용들을 서술하는것보다 《승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경도》조에 설정된 7개의 항목과 각 도, 지방고을들에 있는 42개의 항목을 합쳐 모두 49개의 항목아래 당시까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풍속 등 제반 관계의 자료들을 무려 55권이라는 방대한 부피속에 담고있지만 정치지리, 자연지리, 경제지리, 군사지리, 력사지리적인 내용들은 적다. 반면에 《제영》이라는 항목아래 문학작품들을 소개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항목설정에서도 지리적인 내용보다 《궁전》, 《궁궐》, 《루관》, 《루정》, 《정사》, 《불우》, 《사묘》, 《사단》, 《릉침》, 《릉묘》, 《총묘》, 《고적》, 《명환》, 《인물》, 《우거》, 《류우》, 《효자》, 《충의》, 《렬녀》, 《제영》 등과 같은 작은 항목을 더 많이 설정하였으며 비슷한 대상을 여러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지리적인 내용보다도 자연풍경이나 고적을 유람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찬된 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전라도읍지》에는 총 28개의 항목이 설정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체계를 따르고있다. 그러면서도 군, 현들의 범위에서 봉건적통치질서를 유지하고 봉건적착취를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편찬하였으므로 주민구성과 조세수탈을 위한 항목들인 《호구》와 《전공》, 《전부》, 《호수》, 《제언》, 《장시》, 《환적》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여기에 보다 많은 내용의 자료들을 서술하였으며 그것이 책의 전반적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구체화되어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승람》을 목적으로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봉건적수탈을 목적으로 한 《전라도읍지》들과는 달리 《편람》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 정치지리(행정지리), 자연지리, 교통운수지리, 군사지리, 건축관계 등에 힘을 넣었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지리문헌들의 편찬체계에서 《여지편람》에 필요치 않은 《성씨》, 《풍속》, 《학교》, 《공해》, 《창고》, 《릉침》, 《토산》, 《제언》, 《장시》, 《인물》, 《효자》, 《충의》, 《렬녀》, 《제영》 등의 항목들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꼭 필요한 항목들로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 특징은 셋째로, 종전의 지리문헌들에서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항목들인 《력대국계》, 《도리》, 《해방》, 《해로》, 《조신》 등의 항목들이 더 설정되어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지리문헌들인 《삼국사기》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에 대하여 《군현연혁》에서 간단히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

왕조 전반기까지 군, 현들의 통합과 분할 등을 언급한데 그치고 고조선시기부터 조선봉건 왕조시기까지의 강역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리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도리》(우리 나라의 도로분포상태), 《해로》(우리 나라의 해로와 중국, 일본으로 통하는 바다길 등)에 대해서도 서술된것이 없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지리지로서의 특성에 맞는 항목들과 함께 《부록》이라는 항목을 더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제반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목을 세우고 될수록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그 특징은 넷째로, 자료의 서술방법이 지난 시기의 지리문헌들처럼 간결하게 서술된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서술되어있는것이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편찬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그 이후에 편찬된 《평안도읍지》, 《전라도읍지》, 《황해도읍지》, 《평양지》, 《흡곡읍지》 등 읍지들이 기본자료로 리용되면서도 선행시기의 력사, 지리문헌들과 개별적문집들이 광범하게 리용되었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봉건왕조실록 등 우리 나라의 정사류문헌들과 《고기》, 《동사강목》, 《동국통감》, 《가락국기》, 《삼국유사》를 비롯한 각종 력사자료들도 리용되었으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류형원의 《반계수록》,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등 당시 이름난 실학자들이 쓴 개인문집의 자료들도 리용되었다.

뿐만아니라 《한서》, 《후한서》, 《위서》, 《통전》, 《고금군국지》, 《당서》, 《송사》, 《문헌통고》, 《명일통지》 등 외국의 력사문헌들도 많이 리용하였다.

이처럼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우리 나라의 지리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문헌들에서 방대하게 자료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여지고》를 편찬하였기때문에 풍부한 내용을 담게 되었다.

실례로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에 대하여 서술한 《력대국계》에 대한 항목을 들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지리에 대하여 국내외의 문헌들을 발취하는 방법으로 옮겨놓거나 여러 자료를 년대순에 따라 라렬한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력사지리를 자기식의 체계를 세우고 그와 관련한 여러 문헌자료들과 우리 나라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한 다음 그에 대한 편찬자의 견해를 밝히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 《증보문헌비고》 권13 여지고 1 력대국계 1 고구려국

《증보문헌비고》 권14 여지고 2 력대국계 2 고려국

《증보문헌비고》 권30 여지고 18 관방 6 성곽 6 평안도 평양

《증보문헌고》의 《여지고》에는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그것은 우선 사대주의적관점으로 하여 잘못 서술되었거나 그릇되게 해설한 자료들이 일부 반영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천》편의 평양부에 《기자》우물에 대하여 서술한것을 들수 있다.

부족점은 또한 자료서술에서 과학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항목설정에서 고조선시기 후조선과 만조선을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게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설정한것과 《국내해로》에서 매 해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목을 주고 서술하여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다.

《증보문헌비고》의 《여지고》는 편찬자들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력사지리자료가 풍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고 부문별로 종합되어있어 이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귀중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